

성공 창업을 위한 시뮬레이션

GIST, 2023 하반기 집중창업캠프 개최

- '가상회사 경영게임 캡심(Capsim)' 통해 창업 및 경영 모의훈련
- GIST 재학생 33명 참가... 창업문화 확산 및 미래창업리더 발굴 기대



▲ 미래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GIST 대학생 및 대학원생 33명이 하반기 집중창업 캠프에 참가해 창업 리더가 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집중창업캠프'를 개최했다고 26일 (화) 밝혔다.

이번 캠프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가상회사 경영게임 캡심(Capsim)*'을 주제로 GIST 창업진흥센터(센터장 임성훈)가 구글 공인 교육자 과정과 학생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교육 전문업체와 함께 진행했다.

* 캡심(Capsim): 전세계 50개국 이상 1500여개 혁신 대학의 MBA 정규과정과 글로벌 기업의 임직원/잠재 리더군의 교육 훈련에 30년 이상 활용되어 그 효과성이 입증된 경영교육용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

'캡심'은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영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R&D, 마케팅, 생산, 재무, 인사관리, 품질관리 등을 경험하면서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하반기 집중창업캠프는 창업 기업이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영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하고, 다양한 문제상황 발생 시 경영시뮬레이션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제 창업시장 조기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타 기업과 주고받는 상호 작용이 현실과 동일하게 반영되어 CEO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기업 경영의 성패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 예비창업자에게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집중창업캠프는 기업의 설립, 경쟁의 시작, 사업군 확장, 합리적 투자, 차별화 전략 및 최종 의사결정 등 **총 5단계*에 걸쳐 스토리텔링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의 팀워크와 역할 배분,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해 **총 33명의 학생들을 6개조로 편성**해 1박 2일 동안 진도군 소재 리조트에서 진행됐다.

*** 5단계 프로그램**

- 1단계(기업의 설립): 회사 설립, 임원 선출, 목표수립, 역할배정
- 2단계(경쟁의 시작): 테스트 마켓을 통한 소비자 니즈, 시장 및 경쟁사 분석, 전략 수립
- 3단계(사업군 확장): 시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 및 확장 전략 수립
- 4단계(합리적 투자): 전략적 결정을 통해 시장 선두를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투자 진행
- 5단계(차별화 전략 및 최종의사결정): 지속적 성장을 위한 차별화 전략 수립, 시장 확장 벤치마킹, 재고관리 시스템 투자 진행

현장에서는 각 라운드별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생산량, 판매량, 시장점유율, 손익, 재고량, 주가, 긴급대출 여부 등 **보고서를 활용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과정이** 진행되었고, **경쟁사 분석을 통해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의견 공유가 활발하게** 전개됐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 발생 시,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멘토링을 통해 개선 방안 및 의사결정 방향을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갔다.

예컨대, 의사결정 잘못으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영전략을 다시 세우고, 제품 개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마케팅이나 생산전략이 잘못돼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개선하기도 했다.

특히 경쟁사와의 담합, 협상과 같은 경기침체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임성훈 센터장은 "GIST 집중창업캠프는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학생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면서 "앞으로 우수한 학생창업프로그램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GIST 창업진흥센터는 지난 수년간 **학생창업문화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집중창업캠프, 창업서포터즈, 학생창업동아리, 창업미니스쿨, 모의창업프로그램 등을 발굴 및 운영해 왔다.